

전남産 김, 미국 월마트 등 대형 유통망 진출한다

㈜해농-유통사 카네아마 MOU
1천만달러 규모 납품 등 추진
고품질 마른김·조미김 등 공급
“북미시장 진출 안정적 교두보”

전라남도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김 제품의 미국 대형 유통망 진출 확대에 나섰다.

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역 대표 수산식품기업인 ㈜해농이 미국 뉴저지의 식품 유통사인 카네아마와 1000만 달러 수출 및 미국시장 공동 진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 대형 유통망인 월마트(Walmart USA)를 비롯한 현지 유통 채널을 통해 전남 김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고품질 마른김, 조미김 등 해조류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과 현지 유통 활성화가 핵심 내용이



전남의 대표 수산식품기업인 ㈜해농과 미국 뉴저지 식품 유통사인 카네아마가 미국 월마트 제품공급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한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 제공

다.

이번 협약은 △미국 월마트 등 대형 유통

망 진입 △전남 김의 글로벌 수출 확대 등을 목적으로, 특히 해농이 생산하는 고

품질 마른김, 조미김, 김밥김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납품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농은 품질이 보장된 김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카네아마는 미국 시장 내 판로 개척, 마케팅, 유통을 담당하며 제품 포장, 통관, 물류 분야에도 공동 협의체를 통해 긴밀하게 조율할 계획이다.

카네아마는 월마트, 크로거(Kroger) 등 미국 내 대형 유통망에 다양한 아시안 푸드 제품을 공급하는 프리미엄 유통기업이다. 소피 어워드(Sofi Awards) 수상(김밥김 부문 1위) 이력을 가진 유망 바이다.

해농은 2004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으로 2024년 기준 연 매출 705억 원, 수출 1000만 달러를 달성한 전남의 대표 수산식품 수출기업이다. 나주와 목포 사업장에서 총 136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40여 명의 장

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김밥김, 조미김, 도시락김, 김가루 등 다양한 제품군을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김 수출 확대를 위해 농수산 식품 수출 직불금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김 수출 제품에 대한 중금속 안정성 검사비, 해외판촉 지원 등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에 힘입어 2025년 4월 현재 전남도 김 수출은 전년보다 17.3% 증가한 2억7500만 달러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김 산업은 전남 수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이번 협약은 전남 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안정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 제과업체들, 투표 독려 ‘선거빵’ 출시 눈길

궁전제과·베비에르 등 32곳 참여

광주지역 대표 제과업체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빵’을 출시했다.

1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선거빵’은 궁전제과, 베비에르, 브레드세븐 등 지역의 유명 제과점부터 지역민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골목빵집까지 대한제과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원 다수가 참여해 만들었다.

6월3일 선거일과 기표 도장 디자인이 적용돼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선거 정보를 전달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구매 촉진을 위해 선거빵과 참여업체에 대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선거빵 판매는 선거일인 6월3일까지다.

선거빵 제조 참여업체는 총 32곳이다. △광주 동구(6곳) : 궁전제과 월남점, 궁

전제과 충장점, 베비에르 롯데백화점광주점, 베비에르 문화의전당점, 프렌드 베이커리(동명동), 운솔 베이커리(동명동) △광주 서구(7곳) : 궁전제과 염주점, 베비에르 풍암점, 베비에르 롯데아울렛광주월드점, 브레드 세븐 상무점, 에포르팡(풍암동),페이장과자점(풍암동),그랑 팔레과자점(쌍촌동) △광주 남구(5곳) : 궁전제과 진월점, 베비에르 봉선점, 안데르센과자점(월산동), 팡드베이커리(마켓올레네),행복한 빵집(진월동) △광주 북구(9곳) : 궁전제과 운암점, 궁전제과 두암점, 브레드 세븐 본촌점, 브레드 세븐 일곡점, 브레드 세븐 두암점,행복한 빵집(매곡동),파블로베이커리(운암동),김경오빵집(중흥동),파파레브(신용동) △광주 광산구(5곳) : 궁전제과 수완점, 엠블 베이커리(소촌동),피낭시에(송정동),켄터베리베이커리(대양식자재마트),힐트베이커리(수완동) 등이다.

정상이자

광융합산업진흥회, 일본 시장개척단 ‘성과’

77억 규모 구매계약 체결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4박5일 일정으로 광융합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총 550만 달러(한화 약 77억원) 구매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본 광융합 시장개척단에는 우리로(광분배기),달빛엘이디(DC베이스조명),다운씨엔티(스마트팜 제어시스템),유비넷시스(재난용 배터리팩),남전(LED 십자등) 등 국내 기업 5개사가 참가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일본 유망바이어 33개사가 참석해 75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달빛엘이디 300만 달러, 다운씨엔티(황

진국 대표) 150만 달러, 유비넷시스 100만 달러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국내 기업과 함께 일본 광융합산업 분야 기업 11개사를 방문해 제품생산 및 설치 현장을 답사하고 일본 시장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 간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김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발굴한 현지 바이어들을 10월30~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PHOTONICS KOREA 2025(제23회 국제광융합산업 전시회)’에 초청해 수출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KT-남광주시장상인회, 전통시장 활성화 ‘맞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지니 TV’ 활용 홍보 등 추진

KT 전남전북광역본부가 최근 남광주시장상인회와 함께 ‘남광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T는 남광주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방문 고객 확대를 도모하고 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KT는 남광주 전통시장의 홍보영상을 제작해 자사 IPTV 서비스인 지니 TV 우리동네(Ch.111)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 ‘지니 TV 우리동네’는 유용한 지역정보



KT 전남전북광역본부가 최근 남광주시장 상인회와 함께 ‘남광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 제공

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매장을 홍보하는 TV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서비스로, 소비

자는 해당 채널을 통해 시장 정보, 각 매장의 영업시간,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손승기 남광주시장상인회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KT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광주 전통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오 KT 광주지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경총 중장년내일센터 “중장년 고용 활성화”

㈜다후와 협약…구직알선 서비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운영 중인 중장년 내일센터는 최근 ㈜다후와 중장년 고용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후는 자동차부품제조 및 건물종합관리 서비스 기업으로 40세이상 중장년 채용시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구인정보를

공개하고 중장년내일센터는 구인요건에 맞는 중장년 구직자 맞춤형알선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중장년 고용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다.

협약 후 기업대표 및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중장년 채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장년센터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연계를 해당 기업이 경험있는 중장년 채용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40세이상 중장년 대상 취업알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 기관으로 광주고용복지+센터와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에 입주해있고 중장년 전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서비스 문의는 광주경총 중장년내일센터(062-609-8963~6)로 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삼성전자 OLED TV,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티어링 등 최소화 게이밍 최적화

삼성전자 2025년형 OLED(SF95) TV가 엔비디아의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으며, 게이밍 경험을 강화한다.

삼성 OLED는 TV 최초로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FreeSync Premium Pro)’ 인증을 받았고 이번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까지 추가하며 최적의 게이밍 경험을 제공하는 TV로 확고히 자

리매김 하게 됐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에 동기화하는 기술로, 화면이 겹치며 마치 찢어지는 형태로 보이는 ‘티어링(Tearing)’이나 화면이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삼성 OLED와 고사양 그래픽카드를 통해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는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이밍 화면을 즐길 수 있다.

삼성 OLED는 뛰어난 게이밍 성능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TV 시청 경험도 제공한다.

재생되는 콘텐츠를 인식해 최적의 화질과 사운드를 구현하는 AI 화질 기술과 빛 반사를 줄여 편안한 시청 환경을 제공하는 ‘글레어 프리(Glare-Free)’ 기술로 몰입감 있는 시청 환경을 구현한다.

또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연동해 TV에서 집안 환경과 가전 들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